

아동의 또래지위에 따른 사회적 능력, 정서적 능력과 우정관계의 질*

정 옥 분¹⁾ 한 성 열²⁾ 이 숙 자³⁾ 이 천 회⁴⁾ 정 순 화⁵⁾ 김 경 은⁶⁾ 엄 세 진⁷⁾

고려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초등학교 2, 4, 6학년 아동 327명(남아 159명, 여아 149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및 정서적 능력과 우정관계의 질이 성별, 학년, 또래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각 또래지위 집단(인기아 집단, 보통아 집단, 무시아 집단, 거부아 집단) 아동들이 갖는 사회적 능력 및 정서적 능력과 우정의 질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Coie와 Dodge(1983)의 또래지명검사, Doh와 Falbo(1999)의 사회적 능력척도,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와 대교교육과학연구소(1997)의 정서지능 검사지와 이은혜와 고윤주(1999)의 우정의 질 척도를 이용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Cronbach의 α 계수, 평균, 표준편차, 3-Way MANOVA, 다중판별분석,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정준상관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학년과 또래지위에 따라 사회적 능력, 정서적 능력, 우정관계의 질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또래지위 집단에서 아동들의 사회적 능력 및 정서적 능력은 우정의 질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기아의 경우, 지도력과 대인적응능력이 우정관계의 질을 잘 예측할 수 있었고, 특히 정서적 안정, 도움, 인정을 잘 예측하였다. 보통아의 사회적 능력 및 정서적 능력 변인 중 지도력, 사회적 참여, 감정이입과 정서조절능력이 보통아의 우정관계의 질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으며, 특히 우정관계 중 인정과 정서적 안정을 잘 예측하였다. 무시아의 경우, 사회적 능력과 정서적 능력 중 가장 예측력이 강한 변인은 사회적 참여, 감정이입과 정서조절로 나타났고, 가장 잘 예측되어지는 우정관계 변인은 정서적 안정, 인정, 도움으로 나타났다. 거부아의 경우, 지도력과 사회적 참여가 우정관계의 질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으며, 특히 이 우정관계 중 친밀감과 인정을 잘 예측할 수 있었다.

주요어 : 또래지위, 사회적 능력, 정서적 능력, 우정관계의 질

* 본 연구는 2007년 고려대학교 학제간연구회사업과 부설연구기관 연구교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1)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정서발달연구소 소장

2)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3)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4)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5)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6) 교신저자 : 고려대학교 사회정서발달연구소 연구교수 (E-mail : leejay48@chol.net)

7)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아동들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가정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다. 출생초기에는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통해 사회성이 발달되지만 성장함에 따라 점차 접촉대상이 확대되어 학교나 또래집단이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정옥분과 정순화, 2007). 특히 초등학교 시기는 도당기라고 할 만큼 또래관계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동시에 또래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또래는 서로에게 중요한 역할 모델로서, 강화자로서, 사회적 비교 대상으로서 기능할 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역할도 한다(Shaffer, 1994). 아동들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본적인 사회적 역할을 배우게 되고 다양한 정보를 교환할 뿐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지지해주며 그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또래문화를 만들어간다. 아동기에서 또래집단과의 관계형성에 문제를 보일 경우 이후의 성격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시기의 또래집단과의 관계는 이후 중고등학교에서의 또래집단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또래와의 관계가 좋지 못한 아동은 학업성취도가 낮고 학교에서 중도탈락하거나 이후 청소년 비행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arker & Asher, 1987). 또한 또래에게서 무시되거나 거부된 아동은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고 실행할 기회가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따

라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에 직면했을 때 이를 보완해주는 적절한 사회적 지지망을 갖지 못하게 되어 이후의 삶에서 반사회적인 행동, 학업실패, 심리적인 부적응을 경험하게 된다(Coie, 1990). 반면, 또래집단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는 아동은 성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기있는 사람이 된다(Bagwell, Newcomb, & Bukowski, 1998).

이처럼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또래집단은 다른 사회적 집단과 마찬가지로 위계를 가지는데, 또래집단 내에서 아동이 차지하는 사회적 지위를 또래지위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또래지위는 또래집단 내에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수용, 사회적 선호나 호감, 또는 배척의 정도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통해 평가되는 또래집단 내에서의 위치를 의미한다(이은혜, 1999). Coie와 Dodge (1983)는 또래지위를 분류함에 있어 긍정적·부정적 지명을 통한 이차원적 사회성 측정분류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 선호도와 사회적 영향력까지 고려하여 5개의 또래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인기아들은 또래로부터 선호의 대상이 되면서 가장 적게 거부되는 아동들이고, 보통아들은 인기아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선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이다. 거부되는 아동들은 다른 또래로부터 가장 많이 싫어하는 아동으로 지목되고 또래들이 좋아하지 않는 아동들이며, 무시되는 아동들은 다른 또래들에게 선호의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거부의 대상도 아닌 아동들을 의미한다. 양면적인 아동들은 또래로부터 선호되는 동시에 거부되는 아동들을 의미한다.

인기아들은 일반적으로 신체적 매력이 있고

머리가 좋고 사교적이고 행동적이며 지도력이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고 여러 다양한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유머감각이 뛰어나 함께 놀면 즐겁다. 보통아들은 또래로부터 특별히 인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싫어하는 유형도 아니어서 무난하게 또래들과 어울린다. 무시아들은 친구들의 관심밖에 있는 아동으로 수줍음을 잘 타고 위축된 성격 때문에 낮은 자아존중감, 불안, 우울증 등의 내적인 문제를 가진 경우가 많다. 거부아들은 친구들이 가장 싫어하는 유형으로 신체적, 언어적 공격을 많이 하고 수업 분위기를 망치고 학업성적도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기가 없는 아동들과 친구가 되거나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과 어울리는데, 이들 중에는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양면적인 아동들은 공격적이기도 하고 파괴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자기주장이 강하고 지도력이 있기도 해서 이들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또래도 많아 복합적인 반응을 유발한다(East, 1991).

위와 같은 또래지위는 한번 형성되면 어느 정도 지속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거부아들은 시간과 상황에 따라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Coie & Dodge, 1983; Rogosch & Newcomb, 1989). 중단연구결과(Hymel, Rubin, Rowden, & LeMare, 1990; Kupersmidt, Coie, & Dodge, 1990)를 보면 또래에게 선호되지 않거나 거부되어 부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한 아동은 현재뿐 아니라 이후의 적응 상에도 문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무시되거나 거부되는 아동들이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공통적인 속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또래지위 형성에는 성별, 신체적, 성격적 특성이나 인지적 능력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강화정, 2007; 정옥분과 정순화, 2007; Cillessen, Coie, Terry, & Lochman, 1996)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또래지위에 따라 아동들은 각기 다른 사회적 능력과 정서적 능력을 보인다. 초기 연구들은 주로 또래지위에 따른 사회적 행동 및 적응에서의 차이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또래관계에서의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나, 최근 들어 아동의 정서적인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다소 이루어지고 있다(강화정, 2007; 조양희, 2002; Goleman, 1995). 다시 말해서, 아동이 자신의 감정을 분명하게 표현하거나 조절할 수 있고, 다른 아동의 감정을 읽을 수 있으며, 다른 아동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대인관계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처럼 아동의 정서지능은 사회성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정서지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적인 관계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또래관계의 질과 관련된 연구에서 “친구가 몇 명인가” 혹은 “친구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가” 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정관계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또래관계는 비자발적인 이차적 집단으로서 구성원들의 수는 많지만 상호작용의 빈도와 강도가 약한 반면, 우정관계는 자발적으로 형성된 일차적 집단으로서 비교적 적은 구성원끼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상호작용의 빈도와 강도가 강하다(Epstein, 1984). 질

높은 우정관계에서는 서로에 대한 친밀감, 관심, 애정, 지지,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우정관계의 질은 성별 및 연령에 따라 하위요인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친밀감이나 안정, 애정적인 측면에서 더 높게 지각하였고(배재현과 최보가, 2001; 이은혜, 1999; Furman & Buhrmester, 1992)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친밀감이나 상호성이 증가된다(배재현과 최보가, 2001; Fehr, 1996; Selman, 1980)고 한다. 몇몇 연구에서 질 높은 우정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아동은 심리적 안녕감이 높고(Berndt, Hawkins, & Jiao, 2005) 학교적응을 잘 하며(Tomada, Schneider, de Domini, Greenman, & Fonzi, 2005) 학업성취도도 높고(Burk & Larson, 2005)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rtup & Stevens, 1997). 게다가, 또래에게 수용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아동이더라도 신뢰할 만한 친구가 있으면 이들과 만족할 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Bukowski & Hoza, 1989; Furman & Robins, 1985). 특히 또래에게 무시되거나 거부되는 아동의 경우 부적응의 위험은 높지만, 이들이 친밀한 또래관계를 갖고 있을 때 또래관계는 부적응의 위험을 낮추고 문제를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Newcomb & Bagwell, 1996; Parker & Asher, 1993). 또한 단순히 또래지위만이 아니라 우정관계의 질이 동시에 고려되었을 때 아동의 사회적 행동을 보다 더 잘 예측할 수 있었다는 연구결과들(이은혜·김정윤과 오원정, 2001; Vandell & Hambree, 1994)을 고려해 볼 때 아동의 또래관계는 또래지위 뿐 아니라 우정관계

의 질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즉, 인기아 내에서도 인기아의 사회정서적 능력에 따라 또래 간 우정관계의 질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고, 무시·거부아 내에서도 이들의 사회정서적인 능력에 따라 또래 간 우정관계의 질은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또래지위의 형성 및 또래관계의 유지에 있어 아동의 사회정서적인 능력이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및 정서적 능력과 우정관계의 질이 성별, 학년, 또래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각 또래지위 집단(인기아 집단, 보통아 집단, 무시아 집단, 거부아 집단) 아동들이 갖는 사회적 능력 및 정서적 능력과 우정의 질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즉, 인기아들의 사회적 능력 및 정서적 능력의 어떤 측면이 우정관계의 질의 어떤 측면과 관계가 있고, 무시아나 거부아의 사회적 능력 및 정서적 능력의 어떤 측면이 우정관계의 질의 어떤 측면과 관계가 있는지를 보다 통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또래지위에 따른 우정관계에서의 차이점이나 유사성을 찾아내어 아동들의 또래 간 적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는 거부되거나 무시되는 아동들을 미리 발견하고 이를 중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나타나는 가정 내의 문제나 사회적인 부담감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연구문제

1. 아동의 성별, 학년, 또래지위에 따라 사회적 능력, 정서적 능력과 우정관계의 질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또래지위집단에서의 사회적 능력 및 정서적 능력의 하위변인군과 우정관계의 질의 하위변인군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1. 인기아집단의 사회적 능력 및 정서적 능력의 하위변인군과 우정관계의 질의 하위변인군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2. 보통아집단의 사회적 능력 및 정서적 능력의 하위변인군과 우정관계의 질의 하위변인군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3. 무시아집단의 사회적 능력 및 정서적 능력의 하위변인군과 우정관계의 질의 하위변인군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4. 거부아집단의 사회적 능력 및 정서적 능력의 하위변인군과 우정관계의 질의 하위변인군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별, 학년과 또래지위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및 정서적 능력과 우정관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초등학교 4 곳을 임의로 선정하여 2, 4, 6학년 아동 327명(남아 159명, 여아 14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년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초등학교 전 학

년을 대상으로 하고자 했으나 1학년 아동들은 설문지를 읽고 답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제외시키고 격년, 즉, 2, 4, 6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래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아동의 또래지명검사를 통해 Coie와 Dodge(1983)의 절차에 따라 각 학급 내에서의 또래지위를 구분하였다. 또래지위를 구분한 결과 보통아동이 111명으로 가장 많고, 인기아 86명, 거부아 63명, 무시아 63명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극히 소수로 나타난 양면아 아동들은 제외시켰으며 최종 연구대상자는 2학년(남아 60명, 여아 60명), 4학년(남아 47명, 여아 47명), 6학년(남아 52명, 여아 42명) 아동으로 총 298명이다.

2. 측정도구

또래지위

아동의 또래집단 내 지위를 조사하기 위해 Coie와 Dodge(1983)의 또래지명검사를 실시하였다. 아동에게 동성인 학습 또래의 명단을 제시하고, ‘가장 좋아하는 친구’, ‘교실에서 같이 앉고 싶은 친구’, ‘생일에 초대하고 싶은 친구’를 각각 3명씩 지명하게 하고, ‘함께 하기 싫은 친구’도 각각 3명씩 지명하도록 하였다. 이때 동성 또래만 지명하도록 제한한 것은 이 시기의 아동들이 이성에 대해 편파적이라는 선행연구(Asher & Hymel, 1981)에 기초한 것이다. 채점은 사회성 측정검사 결과 각 아동이 동성 급우에게서 받은 긍정적 지명수의 합과 부정적 지명수의 합을 각각 계산하여 학급 내에서 Z표준점수로 환산한 다음, 사회적 선호와 사회적 영향 점수를 구하였다. 이때

사회적 선호 점수는 긍정적 지명점수에서 부정적 지명점수를 감산함으로써 구하고, 사회적 영향 점수는 긍정적 지명점수와 부정적 지명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는 것이다. Coie와 Dodge(1983)는 이렇게 구한 4가지 점수를 이용하여 아동의 또래지위를 다섯 가지(인기아, 보통아, 무시아, 거부아, 양면아)로 구분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극히 소수로 나타난 양면아는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사회적 능력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Doh와 Falbo(1999)가 개발한 ‘사회적 능력척도(Social Competence Scale)’를 사용하였다. Doh와 Falbo(1999)는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 검증을 하였으며 요인분석결과 총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사회적 능력의 하위영역은 대인적응성, 인기도/지도력, 사회적 참여의 3가지 요인으로 각각 8문항이고 총 2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인적응성 요인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협조성과 적응능력에 대한 것이고, 인기도/지도력 요인은 리더십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며, 사회적 참여 요인은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것이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계수는 대인적응성이 .82, 인기도/지도력이 .83, 사회적 참여가 .86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능력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적 능력을 평가

하기 위해 정서지능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정서지능 검사지는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와 대교 교육과학연구소(1997)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표준화한 것이다.

정서지능은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활용 등의 총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인식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재빨리 인식하고 알아차리는 능력을 의미하고, 정서표현은 자신과 타인이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을 적절한 말로 표현하고, 상황에 맞는 행동이나 표정으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감정이입은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여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있는 능력이며 정서조절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끝으로 정서활용은 자신의 정서를 이용하여 생산적인 활동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본 검사지는 정서인식 8문항, 정서표현 8문항, 감정이입 7문항, 정서조절 15문항, 정서활용 10문항으로 모두 4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에 대한 반응은 ‘항상 그렇다’(3점), ‘가끔 그렇다’(2점), ‘그렇지 않다’(1점) 등의 3점 척도로 구분된 것과 정서활용영역에 해당하는 문항은 2점 척도로 구분되어 있다. 척도의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계수는 정서인식은 .87, 정서표현이 .83, 감정이입이 .88, 정서조절이 .82, 정서활용이 .82로 나타났다.

우정관계의 질

이은혜와 고윤주(1999)는 Furman과 Buhrmester(1985), Mendelson(1995), Mendelson과 Abound(1999)의 척도를 참고하여,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우정의 질 척도(Friendship Quality Scale: FQS)를 개발하였고,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척도는 총 9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뉘는데 우정의 긍정적 기능을 측정하는 정서적 안정, 신뢰, 도움, 친밀, 인정, 교제의 즐거움의 6개 영역과 갈등과 경쟁이 포함된 2개의 부정적인 영역, 전반적인 우정관계의 만족도가 포함되어 있다. 우정관계의 긍정적 기능은 새롭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편안함과 자신감을 부여하는 ‘정서적 안정’, 친구와의 지속적인 관계와 충직함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신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충고를 해주거나 목적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실제로 도와주는 ‘도움’,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수용적인 분위기를 제공해주고 친구의 욕구나 기분 상태를 민감하게 아는 ‘친밀감’, 칭찬과 격려 등을 통해 긍정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주는 ‘인정’, 친구와 무엇인가 함께 하는 것과 그에 따른 재미와 즐거움 등을 의미하는 ‘교제의 즐거움’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우정관계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의견의 불일치, 다툼, 또는 친구의 괴롭힘 등 불편한 상황에 대한 지각인 ‘갈등’과 일상생활에서 친구와 비교하는 경쟁심을 의미하는 ‘경쟁’이 있다. 이 외에 우정관계에 대한 애정과 우정관계에 대한 만족스런 느낌을 의미하는 ‘만족감’을 포함해 총 9가지 측면을 다루고 있다. 하위요인별 4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4점 척도로 ‘아주 많이 그렇다’(4점), ‘많이 그렇다’(3점), ‘조금 그렇다’(2점), ‘아주 조금 그렇다’(1점)로 구분하였다. 척도의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계수는 정서적 안정이 .88,

신뢰가 .89, 도움이 .80, 친밀감이 .83, 인정 .82, 즐거움이 .81, 만족감이 .86, 갈등이 .80, 경쟁이 .89이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별, 학년, 또래지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정서적 능력과 우정관계의 질에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2학년과 6학년 아동 72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적절성과 시행상의 문제점들을 알아보았고 이를 통해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이나 적절치 못한 문항을 수정하였으며 본 조사 실시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체크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된 질문지를 가지고 서울 소재 초등학교 4곳의 2, 4, 6학년 학생 32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나누어주고 질문지를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2학년의 경우 질문지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교사가 질문지의 내용을 읽어주고 답하게 하였다. 본 연구는 2학년, 4학년과 6학년 아동 327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하였으나 부실기재된 것과 또래지위 분류를 통해 양면아로 분류된 아동을 제외하여 298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분석

아동의 사회적 능력, 정서적 능력, 우정관계의 질에 대한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고, 아동의 성별, 학년별, 또래지위에 따른 사

회적 능력, 정서적 능력, 우정관계의 질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3-Way MANOVA¹⁾를 실시하였으며 추후검증을 위해 다중판별분석²⁾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능력, 정서적 능력과 우정관계의 질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회적 능력, 정서적 능력의 하위요인군과 우정관계의 질의 하위요인군 간의 통합적인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아동의 성별, 학년, 또래지위에 따른 사회적 능력, 정서적 능력과 우정관계의 질

아동의 성별, 학년, 또래지위에 따른 사회적 능력의 차이

아동의 성별, 학년별, 또래지위에 따른 사회적 능력의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부록 1과 같다. 성별, 학년별 또래지위에 따른 사회적 능력의 평균을 살펴보면 대인적응성에서는 4학년 인기여아의 점수($M=3.23$, $SD=.16$)가 가장

높고 6학년 거부여아의 점수($M=2.13$, $SD=.24$)가 가장 낮다. 지도력요인에서는 6학년 인기여아($M=2.92$, $SD=.25$)의 점수가 가장 높고 4학년 무시남아의 점수($M=1.84$, $SD=.35$)가 가장 낮다. 사회적 참여요인의 경우 6학년 거부여아의 점수가 가장 낮고($M=2.53$, $SD=.27$) 4학년 보통여아와 2학년 인기여아의 점수($M=3.56$, $SD=.17$)가 가장 높다.

표 1은 사회적 능력 하위요인의 삼원다변량 분산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학년 간 차이를 나타내는 Wilks' Λ =.87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F_{(9,564)}=6.51$, $p<.001$), 이는 학년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를 토대로 사회적 능력에서 학년 간 차이를 살펴보면, 지도력, 대인적응과 사회적 참여에서 학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또래지위 간 차이를 나타내는 Wilks' Λ =.88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F_{(9,686)}=4.05$, $p<.001$), 이는 또래지위 간에 사회적 능력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를 토대로 사회적 능력에서 또래지위 간 차이를 살펴보면, 지도력, 대인적응과 사회적 참여에서 또래지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별에 따른 주효과, 성별과 학년, 성별과 또래지위, 학년과 또래지위, 성별과 학년 및 또래지위 간에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추후검증으로 종속변인의 어느 하위요인에서 어떤 집단 간에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학년과 또래집단에 대한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학년에 대한 세 집단 판별분석 결과, 한 개의 유의한 함수가 산출되었다. 유의도 검증결과를 보면 제1 판별함수의 Wilks'

1) 종속변인들 간에 상관이 있을 때 종속변인 각각에 대해 ANOVA를 여러 번 실시하게 되면 제1종 오류군(familywise type 1 error)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2) MANOVA분석 후 집단 간에 종속변인들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때, 추후분석으로 다시 ANOVA를 실시하게 되면 제1종 오류군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ANOVA의 추후검증으로 다중판별분석을 사용하였다.

표 1. 사회적 능력 하위요인의 삼원다변량분산분석(MANOVA)

종속변인	Source	Wilks' Lamda	제 III 유형제곱합	df	MS	F	p
대인적응	성별	.973	1.270	1	1.270	3.829	.051
지도력			.082	1	.082	.171	.680
사회적 참여			2.391	1	2.391	5.344	.022
대인적응	학년	.875***	3.120	2	1.560	4.702	.010
지도력			5.188	2	2.594	5.392	.005
사회적 참여			3.819	2	1.910	4.267	.015
대인적응	또래지위	.882***	4.787	3	1.596	4.810	.003
지도력			10.833	3	3.611	7.506	.000
사회적 참여			4.338	3	1.446	3.232	.023
대인적응	성별*학년	.992	.544	2	.272	.820	.441
지도력			.270	2	.135	.281	.755
사회적 참여			.169	2	.085	.189	.828
대인적응	성별*또래지위	.964	.732	3	.244	.735	.532
지도력			1.558	3	.519	1.080	.358
사회적 참여			3.800	3	1.267	2.831	.039
대인적응	학년*또래지위	.934	1.374	6	.229	.690	.658
지도력			2.626	6	.438	.910	.488
사회적 참여			3.444	6	.574	1.283	.265
대인적응	성별*학년*또래지위	.968	3.865	6	.644	1.942	.074
지도력			1.130	6	.188	.391	.884
사회적 참여			3.237	6	.539	1.206	.303

*** $p < .001$

$Lambda=.869$ 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는 학년차이를 판별하는 판별함수의 표준화계수(standardized coefficients)가 제시되어 있다. 표준화계수는 판별함수상의 점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변수가 가장 많이 기여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표준화계수가 크면 클수록 그 변수의 기여도나 중요성

표 2. 사회적 능력의 또래지위 간 차이를 판별하는 판별함수의 표준화계수

변수	표준화계수	
	학년 함수 1	또래지위 함수 1
대인적응	.371	.285
지도력	-.919	.834
사회적 참여	.722	.176

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지도력(.92)과 사회적 참여(.72)가 집단분리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중심점(group centroid)을 비교해보면 제1 판별함수에서 2학년은 .16, 4학년은 .32, 6학년은 -.53으로 세 집단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특히 2학년 및 4학년과 6학년 간의 차이가 뚜렷한 것을 알 수 있다.

또래집단에 대한 네 집단 판별분석 결과, 한 개의 유의한 함수가 산출되었다. 유의도 검증결과를 보면 제1 판별함수의 Wilk's Λ = .906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는 또래집단의 차이를 판별하는 판별함수의 표준화계수(standardized coefficients)가 제시되어 있다. 표준화계수를 토대로 살펴보면 제1 판별함수에서는 지도력(.83)이 집단분리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집단중심점(group centroid)을 비교해보면 제1 판별함수에서 인기아는 .29, 보통아는 .14, 무시아는 -.36, 거부아는 -.36로, 이는 또래지위의 네 집단이 세 집단(인기아, 보통아, 무시 및 거부아 집단)으로 분리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제1 판별함수에서는 사회적 능력 중 지도력이 인기아와 무시아 및 거부아를 잘 분리시키는 변수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별, 학년, 또래지위에 따른 정서적 능력의 차이

아동의 성별, 학년별, 또래지위에 따른 정서적 능력의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부록 1과 같다. 성별, 학년별 또래지위에 따른 정서인식의 평균을 살펴보면 정서인식에서는 6학년 무시남아($M=2.25$, $SD=.14$)의 점수가 가장 낮고, 4

학년 무시여아의 점수($M=2.75$, $SD=.14$)가 가장 높다. 정서표현요인에서는 2학년 거부여아의 점수($M=2.03$, $SD=.12$)가 가장 낮고, 4학년 보통여아의 점수($M=2.57$, $SD=.10$)가 가장 높다. 감정이입요인의 경우 6학년 거부여아의 점수($M=1.83$, $SD=.20$)가 가장 낮고, 2학년 인기여아의 점수($M=2.47$, $SD=.11$)가 가장 높다. 정서조절의 경우 4학년 무시남아의 점수($M=1.90$, $SD=.25$)가 가장 낮고, 6학년 보통남아의 점수($M=2.56$, $SD=.13$)가 가장 높으며, 정서활용에서는 6학년 거부여아($M=1.37$, $SD=.11$)의 점수가 가장 낮고, 4학년 인기여아와 2학년 거부여아의 점수($M=1.69$, $SD=.08$)가 가장 높다.

아동의 성별, 학년별, 또래지위에 따른 정서적 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삼원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참고). 학년 간 차이를 나타내는 Wilk's Λ = .84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F_{(10,556)}=4.931$, $p < .001$), 이는 학년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를 토대로 정서적 능력에서 학년 간 차이를 살펴보면, 정서인식, 정서표현과 정서조절에서 학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서적 능력 하위요인은 또래지위에 따른 주효과, 성별과 학년, 성별과 또래지위, 학년과 또래지위, 성별과 학년 및 또래지위 간에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에 따른 각 종속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정서적 능력의 하위요인인 정서표현($F_{(2,283)}=6.93$, $p < .01$), 정서인식($F_{(2,283)}=5.83$, $p < .01$)과 정서조절($F_{(2,283)}=5.28$, $p < .01$)의 평균에서 학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학년에 따라 정서표현, 정서인식과 정서조절

표 3. 정서적 능력 하위요인의 삼원다변량분산분석(MANOVA)

종속변인	Source	Wilks' Lambda	제 III 유형 제곱합	df	MS	F	p
정서인식	성별	.979	.784	1	.784	5.144	.024
정서표현			.354	1	.354	2.218	.138
감정이입			.024	1	.024	.107	.744
정서조절			.034	1	.034	.134	.715
정서활용			.001	1	.001	.012	.911
정서인식	학년	.844***	1.793	2	.896	5.878	.003
정서표현			2.213	2	1.107	6.928	.001
감정이입			.034	2	.017	.075	.928
정서조절			2.665	2	1.333	5.282	.006
정서활용			.429	2	.215	2.971	.053
정서인식	또래지위	.919	.324	3	.108	.707	.548
정서표현			1.383	3	.461	2.887	.036
감정이입			2.556	3	.852	3.742	.012
정서조절			3.482	3	1.161	4.601	.004
정서활용			.222	3	.074	1.026	.381
정서인식	성별*학년	.986	.070	2	.035	.229	.796
정서표현			.241	2	.120	.754	.472
감정이입			.078	2	.039	.172	.842
정서조절			.015	2	.008	.031	.970
정서활용			.029	2	.014	.198	.821
정서인식	성별*또래지위	.967	.452	3	.151	.987	.399
정서표현			.178	3	.059	.372	.773
감정이입			.518	3	.173	.758	.519
정서조절			1.072	3	.357	1.416	.238
정서활용			.102	3	.034	.473	.702
정서인식	학년*또래지위	.908	1.041	6	.173	1.137	.341
정서표현			.219	6	.037	.229	.967
감정이입			2.735	6	.456	2.002	.065
정서조절			.464	6	.077	.306	.933
정서활용			.465	6	.078	1.073	.378
정서인식	성별*학년*또래지위	.890	1.060	6	.177	1.158	.329
정서표현			1.200	6	.200	1.252	.280
감정이입			3.002	6	.500	2.198	.043
정서조절			1.422	6	.237	.939	.467
정서활용			.408	6	.068	.942	.465

*** $p < .001$

에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종속변수 중 어떤 변수가 집단을 가장 잘 판별하는지를 살펴보는 추후분석을 위해 다시 학년에 대한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학년에 대한 세 집단 판별분석 결과, 두 개의 유의한 함수가 산출되었다. 유의도 검증 결과를 보면 제1 판별함수의 $Wilk's\ Lambda = .851$ 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제2 판별함수의 $Wilk's\ Lambda = .957$ 로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에는 학년 간 차이를 판별하는 판별함수의 표준화계수(standardized coefficients)가 제시되어 있다. 표준화계수를 토대로 살펴보면 제1 판별함수에서는 정서조절(.67)과 정서활용(-.63), 정서표현(.59)이 집단분리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중심점(group centroid)을 비교해보면 제1 판별함수에서 2학년은 -.42, 4학년은 .13, 6학년은 .39로, 이는 세 집단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특히 2학년과 6학년 간의 차이가 뚜렷한 것을 알 수 있다. 제2 판별함수에서는 정서조절(-.85)과 정서인식(.62)이 집단분리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 판별함수의 집단중심점을 비교해보면 2학년은 -.08, 4학년은 .31, 6학년은 -.21로, 이는

표 4. 정서적 능력의 학년 간 차이를 판별하는 판별함수의 표준화계수

변수	표준화계수	
	학년 제1 함수	학년 제2 함수
정서인식	.291	.624
정서표현	.589	.280
감정이입	-.306	.349
정서조절	.674	-.853
정서활용	-.634	.228

세 집단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특히 6학년과 4학년 간의 차이가 뚜렷함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성별, 학년, 또래지위에 따른 우정관계의 질의 차이

아동의 성별, 학년별, 또래지위에 따른 우정관계의 질의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부록 1과 같다. 성별, 학년별 또래지위에 따른 우정관계의 질의 평균을 살펴보면 정서적 안정에서는 2학년 거부남아의 점수($M=1.91$, $SD=.25$)가 가장 낮고, 4학년 인기여아의 점수($M=3.28$, $SD=.23$)가 가장 높다. 신뢰요인에서는 4학년 거부남아의 점수($M=2.48$, $SD=.21$)가 가장 낮고, 2학년 인기여아의 점수($M=3.62$, $SD=.17$)가 가장 높으며, 도움에서는 6학년 무시남아의 점수($M=2.16$, $SD=.26$)가 가장 낮고 6학년 보통여아($M=3.15$, $SD=.16$)와 6학년 무시여아($M=3.15$, $SD=.28$)가 가장 높다. 친밀감의 경우 2학년 거부남아($M=1.68$, $SD=.25$)의 점수가 가장 낮고 6학년 보통여아의 점수($M=3.08$, $SD=.18$)가 가장 높고, 인정의 경우 6학년 무시남아의 점수($M=1.72$, $SD=.29$)가 가장 낮고 4학년 인기남아의 점수($M=3.02$, $SD=.22$)가 가장 높으며, 교제의 즐거움에서는 6학년 무시남아의 점수($M=2.56$, $SD=.25$)가 가장 낮고 2학년 보통남아의 점수($M=3.86$, $SD=.14$)가 가장 높다. 만족요인에서는 4학년 거부남아의 점수($M=2.70$, $SD=.18$)가 가장 낮고 6학년 인기여아의 점수($M=3.79$, $SD=.22$)가 가장 높으며, 갈등요인에서는 4학년 인기여아의 점수($M=1.36$, $SD=.23$)가 가장 낮으며 6학년 거부여아의 점수($M=2.25$, $SD=.34$)가 가장 높고, 경쟁요인에

서는 4학년 인기여아의 점수($M=1.56$, $SD=.28$)가 가장 낮고 2학년 무시여아의 점수($M=2.63$, $SD=.31$)가 가장 높다.

표 5는 우정관계 하위요인의 삼원다변량분산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학년 간 차이를 나타내는 Wilks' Lambda=.8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F_{(18,552)}=3.50$, $p<.001$), 이는 학년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를 토대로 우정관계에서의 학년 간 차이를 살펴보면, 정서적 안정, 교제의 즐거움과 경쟁에서 학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또래지위 간 차이를 나타내는 Wilks' Lambda=.82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F_{(27,806)}=1.95$, $p<.01$), 이는 또래지위 간에 우정관계의 질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를 토대로 우정관계에서 또래지위 간 차이를 살펴보면, 정서적 안정, 신뢰, 도움, 친밀감, 인정, 교제의 즐거움과 만족에서 또래지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별과 학년, 성별과 또래지위, 학년과 또래지위, 성별과 학년 및 또래지위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종속변수 중 어떤 변수가 집단을 가장 잘 판별하는지를 살펴보는 추후분석을 위해 다시 학년과 또래집단에 대한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학년에 대한 세 집단 판별분석 결과, 한 개의 유의한 함수가 산출되었다. 유의도 검증결과를 보면 제1 판별함수의 Wilk's Lambda=.800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의 학년 간 차이를 판별하는 판별함수의 표준화계수(standardized coefficients)를 토대로 살펴보면 정서적 안정(-.88), 신뢰(.57)와 교제의 즐거움(.52)가 집단분

리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중심점(group centroid)을 비교해보면 제1 판별함수에서 2학년은 .57, 4학년은 -.27, 6학년은 -.45으로, 이는 세 집단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특히 2학년과 6학년 간의 차이가 뚜렷한 것을 알 수 있다.

또래집단에 대한 네 집단 판별분석 결과, 한 개의 유의한 함수가 산출되었다. 유의도 검증결과를 보면 제1 판별함수의 Wilk's Lambda=.835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의 또래집단의 차이를 판별하는 판별함수의 표준화계수(standardized coefficients)를 토대로 살펴보면 제1 판별함수에서는 정서적 안정(.75), 도움(-.52)과 신뢰(.48)가 집단분리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집단중심점(group centroid)을 비교해보면 제1 판별함수에서 인기아는 .40, 보통아는 .10, 무시아는 -.13, 거부아는 -.62로, 이는 네 집단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특히 인기아, 보통아, 무시아와 거부아 간의 차이가 뚜렷함을 알 수 있다. 즉, 제1 판별함수에서는 우정관계의 질 중 정서적 안정, 도움과 신뢰가 인기아와 무시아 및 거부아를 잘 분리시키는 변수로 나타났다.

2. 또래지위집단별 사회적 능력 및 정서적 능력과 우정관계의 질 간의 관계

인기아집단의 사회적 능력 및 정서적 능력과 우정관계의 질 간의 관계

인기아의 사회적 능력 및 정서적 능력과 우정관계의 질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부록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인기아의 사회적

표 5. 우정관계의 질 하위요인의 삼원다변량분산분석(MANOVA)

종속변인		Source	Wilks' Lambda	제 III 유형 제곱합	df	MS	F	p
우정 관계의 질	정서적 안정	성별	.950	7.798	1	7.798	11.140	.001
	신뢰			.872	1	.872	1.602	.207
	도움			3.469	1	3.469	6.438	.012
	친밀감			4.039	1	4.039	5.706	.018
	인정			3.156	1	3.156	4.767	.030
	교제 즐거움			.007	1	.007	.014	.905
	만족			.925	1	.925	2.392	.123
	갈등			.003	1	.003	.004	.952
	경쟁			.003	1	.003	.003	.956
	정서적 안정	학년	.805***	6.681	2	3.341	4.772	.009
	신뢰			2.846	2	1.423	2.615	.075
	도움			3.221	2	1.610	2.988	.052
	친밀감			4.072	2	2.036	2.877	.058
	인정			1.474	2	.737	1.113	.330
	교제 즐거움			3.939	2	1.969	4.031	.019
	만족			1.699	2	.850	2.197	.113
	갈등			.236	2	.118	.168	.846
	경쟁			6.258	2	3.129	3.066	.048
	정서적 안정	또래지위	.829**	14.017	3	4.672	6.675	.000
	신뢰			11.211	3	3.737	6.867	.000
	도움			5.667	3	1.889	3.505	.016
	친밀감			12.380	3	4.127	5.831	.001
	인정			6.211	3	2.070	3.127	.026
	교제 즐거움			5.255	3	1.752	3.586	.014
	만족			8.167	3	2.722	7.040	.000
	갈등			3.797	3	1.266	1.796	.148
	경쟁			2.295	3	.765	.749	.523
	정서적 안정	성별*학년	.907	1.717	2	.859	1.227	.295
	신뢰			1.007	2	.504	.925	.398
	도움			.449	2	.225	.417	.659
	친밀감			2.970	2	1.485	2.098	.125
	인정			.841	2	.421	.635	.531
	교제 즐거움			5.369	2	2.685	5.495	.005
	만족			2.543	2	1.271	3.288	.039
	갈등			.653	2	.326	.463	.630
	경쟁			4.469	2	2.235	2.189	.114

표 5. 우정관계의 질 하위요인의 삼원다변량분산분석(MANOVA) (계속)

종속변인	Source	Wilks' Lambda	제 III 유형 제곱합	df	MS	F	p
우정 관계의 질	정서적 안정	성별* 또래지위 .903	3.657	3	1.219	1.741	.159
	신뢰		.860	3	.287	.527	.664
	도움		1.631	3	.544	1.009	.389
	친밀감		1.091	3	.364	.514	.673
	인정		3.054	3	1.018	1.537	.205
	교제 즐거움		.128	3	.043	.087	.967
	만족		2.197	3	.732	1.894	.131
	갈등		1.187	3	.396	.561	.641
	경쟁		2.366	3	.789	.773	.510
	정서적 안정	학년* 또래지위 .844	4.959	6	.827	1.181	.317
	신뢰		5.584	6	.931	1.710	.118
	도움		.721	6	.120	.223	.969
	친밀감		2.601	6	.434	.613	.720
	인정		2.144	6	.357	.540	.778
	교제 즐거움		2.438	6	.406	.832	.546
	만족		4.427	6	.738	1.908	.079
	갈등		.285	6	.048	.067	.999
	경쟁		6.006	6	1.001	.981	.439
	정서적 안정	성별*학년* 또래지위 .877	3.365	6	.561	.801	.570
	신뢰		2.618	6	.436	.802	.569
	도움		4.261	6	.710	1.318	.249
	친밀감		5.769	6	.962	1.359	.231
	인정		5.152	6	.859	1.297	.258
	교제 즐거움		3.181	6	.530	1.085	.371
	만족		1.902	6	.317	.820	.555
	갈등		2.635	6	.439	.623	.712
	경쟁		4.306	6	.718	.703	.647

*** $p < .001$, ** $p < .01$

능력은 우정관계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인기아의 대인적응은 또래관계에서의 정서적 안정($r=.23$, $p<.05$)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경쟁($r=-.36$, $p<.01$)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고, 지도력은 정서적

안정($r=.49$, $p<.001$), 인정($r=.48$, $p<.001$), 도움($r=.38$, $p<.001$)과는 높은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사회적 참여는 친밀감($r=.34$, $p<.01$), 경쟁($r=.31$, $p<.01$), 교제의 즐거움($r=.30$, $p<.01$), 신뢰($r=.29$, $p<.01$), 만족($r=.26$, $p<.05$)과 정적

표 6. 우정관계의 학년 및 또래지위 간 차이를 판별하는 판별함수의 표준화계수

변수	표준화계수	
	학년	또래지위
정서적 안정	-.884	.746
신뢰	.571	.480
도움	-.226	-.517
친밀감	-.432	.249
인정	.258	-.107
교제의 즐거움	.518	-.025
만족	.109	.149
갈등	-.068	-.278
경쟁	.360	-.179

인 상관을 보였다. 즉, 인기아의 경우 대인적응능력이 높을수록 또래로부터 편안함을 느끼는 반면 갈등은 덜 느끼고, 지도력이 높을수록 또래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인정도 받으며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참여도가 높을수록 또래로부터 친밀감을 많이 느끼고 경쟁도 느끼지만 또래관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즐거움을 느끼고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기아의 정서적 능력도 우정관계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인기아의 정서표현능력은 또래관계에서의 정서적 안정($r=.43, p<.001$), 도움($r=.32, p<.01$), 인정($r=.25, p<.05$)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경쟁($r=-.26, p<.05$)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인기아의 감정이입능력은 도움($r=.46, p<.001$), 정서적 안정($r=.38, p<.01$), 만족($r=.37, p<.01$), 신뢰($r=.32, p<.01$), 인정($r=.27, p<.05$), 교제의 즐거움($r=.27, p<.05$), 친밀감($r=.25, p<.05$),과 유의한 높은 상관을 보였고 정서조절은 도움($r=.39, p<.001$),

정서적 안정($r=.36, p<.01$), 인정($r=.32, p<.01$), 신뢰($r=.30, p<.01$), 만족감($r=.28, p<.01$)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정서활용은 정서적 안정($r=.29, p<.01$), 도움($r=.24, p<.05$), 인정($r=.21, p<.05$)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인기아의 경우 정서표현능력이 높을수록 또래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필요할 때 도움을 얻고 자신의 가치에 대해 인정을 받으며 경쟁심리는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감정이입이 잘될수록 또래로부터 자신의 가치에 대해 인정을 받으며 편안함을 느끼고 관계에 만족하고 관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즐거움을 느끼고 친밀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조절을 잘 하는 인기아들은 또래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고 편안함을 느끼며 관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래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관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기아의 사회적 능력 및 정서적 능력과 우정관계 간의 관계를 보다 통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즉 인기아의 우정관계의 질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사회적 능력 및 정서적 능력 요인이 무엇이며, 인기아의 사회적 능력 및 정서적 능력 요인에 의해 가장 잘 예측되어지는 우정관계 요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인기아의 사회적 능력 및 정서적 능력을 예측변인 군으로 하고 우정관계의 질을 준거변인 군으로 하여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8개 정준함수 중 2개의 정준함수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제1 정준함수(Wilk's $\Lambda=.191, p<.001$), 제2 정준함수(Wilk's $\Lambda=.355, p<.05$)에 대해 정준상관관계를 자세히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에 제

표 7. 인기아집단의 사회적 능력 및 정서적 능력 하위변인군과 우정관계의 질 하위변인군 간의 정준상관관계 분석

		예측변인군								준거변인군								
		대인 적응	지 도 력	사회적 참여	정서 인식	정서 표현	감정 이입	정서 조절	정서 활용	정서적 안정	신뢰	도움	친 밀 감	인정	교제의 즐거움	만족	갈등	경쟁
제1 정준 변량 합수	W	-.47	-.41	.28	.16	-.33	-.24	-.17	-.06	-.62	-.17	-.46	.26	.04	.28	.10	.47	.04
	L	-.67	-.68	-.04	-.13	-.59	-.48	-.58	-.52	-.78	-.26	-.69	-.09	-.55	-.12	-.27	.52	.30
	L ²	.45	.46	.00	.02	.35	.23	.34	.27	.61	.07	.48	.01	.30	.01	.07	.27	.09
	%ΣL ²	21.22	21.69	.00	.00	16.50	10.85	16.04	12.74	31.94	3.66	25.13	.52	15.71	.52	3.66	14.14	4.71
제2 정준 변량 합수	W	.46	-.07	-.74	-.02	.15	-.20	-.25	-.16	-.04	-.02	.00	-.49	-.15	-.15	-.18	-.09	-.62
	L	.26	-.41	-.82	-.14	.03	-.59	-.40	-.14	-.39	-.49	-.47	-.66	-.46	-.61	-.49	-.24	-.62
	L ²	.07	.17	.67	.02	.00	.35	.16	.02	.15	.24	.22	.44	.21	.37	.24	.06	.38
	%ΣL ²	4.79	11.64	45.89	1.37	.00	23.97	10.96	1.37	6.49	10.39	9.52	19.05	9.09	16.01	10.39	2.60	16.45

시된 제1 정준변량합수의 정준부하치에 대해 살펴보면 예측변인군에서 가장 부하치가 높은 변인은 지도력(.68)과 대인적응(.67)이었으며 준거변인군 중 부하치가 가장 높은 변인은 정서적 안정(.78), 도움(.69), 인정(.55)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변인군에서 지도력과 대인적응은 각각 군내변량의 21.69%와 21.22%를 설명하였으며, 준거변인군에서는 정서적 안정이 31.94%, 도움이 25.13%를 설명하였다. 이는 인기아의 경우 지도력과 대인적응능력이 인기아의 우정관계의 질을 잘 예측할 수 있으며 특히 우정관계 중 정서적 안정, 도움, 인정을 잘 예측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즉, 인기아 중에서 지도력과 대인적응능력이 뛰어날수록 또래관계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필요할 때 또래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 정준변량합수의 정준부하치를 살펴보면, 예측변인군에서 가장 부하치가 높은 변인은 사회적 참여(.82)와 감정이입(.59)이었으며 준거

변인 중 가장 부하치가 높은 변인은 친밀감(.66)과 교제의 즐거움(.61)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변인군에서 사회적 참여는 군내변량의 45.89%를, 감정이입은 23.97%를 설명하였으며, 준거변인군에서는 친밀감이 19.05%를, 교제의 즐거움은 16.01%를 설명하였다. 이는 인기아의 경우 사회적 참여와 감정이입이 인기아의 우정관계의 질을 잘 예측할 수 있으며, 특히 우정관계 중 친밀감과 교제의 즐거움을 잘 예측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즉, 인기아의 경우 사회적 참여도가 높고 감정이입이 높을수록 또래관계에서 친밀감을 느끼고 교제를 통한 즐거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기아의 사회적 능력 및 정서적 능력 변인군과 우정관계의 각 변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또한 인기아의 우정관계 변인군과 사회적 능력 및 정서적 능력의 각 변인군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교차상관을 통해 알아본 결과, 인기아의 사회적 능력 및 정서적 능력의 교차상관에서 가장 예측력이 강한

변인은 지도력(-.46)과 대인적응(-.45)으로 나타났다, 가장 잘 예측되어지는 우정관계 변인은 정서적 안정(-.53)과 도움(-.47)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기아의 사회적 능력 및 정서적 능력 변인 중 지도력과 대인적응능력이 인기아의 우정관계의 질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으며, 특히 우정관계 중 정서적 안정과 도움을 잘 예측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즉, 인기아의 경우 지도력과 대인적응능력이 떨어질수록 또래로부터 정서적 안정감과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아집단의 사회적 능력과 정서적 능력 및 우정관계의 질 간의 관계

보통아의 사회적 능력 및 정서적 능력과 우정관계의 질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부록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보통아의 사회적 능력은 우정관계와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보통아의 대인적응은 우정관계의 인정($r=.20, p<.05$)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지도력은 인정($r=.45, p<.001$), 친밀감($r=.36, p<.001$), 정서적 안정($r=.34, p<.001$), 도움($r=.27, p<.01$), 신뢰($r=.24, p<.05$), 만족($r=.22, p<.05$)과는 높은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사회적 참여는 인정($r=.38, p<.001$), 교제의 즐거움($r=.32, p<.01$), 만족($r=.30, p<.01$), 도움($r=.30, p<.01$), 정서적 안정($r=.28, p<.01$), 신뢰($r=.28, p<.01$), 친밀감($r=.28, p<.01$), 경쟁($r=.23, p<.05$)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갈등($r=-.20, p<.01$)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즉, 보통아의 경우 대인적응능력이 높을수록 또래로부터 인정을 많이 받고, 지도력이 높으면 또래로부터 인정과 편안

함을 느끼고 필요할 때 적절하게 도움을 받으며 관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참여도가 높을수록 또래로부터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인정을 받고 교제의 즐거움을 느끼며 관계에 만족하고 적절하게 도움을 받고 편안함도 느끼고 경쟁심도 느끼지만 갈등은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아의 정서적 능력도 우정관계와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보통아의 정서인식능력은 또래관계에서의 정서적 안정($r=.33, p<.001$), 만족($r=.31, p<.01$), 도움($r=.29, p<.01$), 인정($r=.27, p<.01$), 신뢰($r=.25, p<.01$), 친밀감($r=.22, p<.05$)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정서표현능력은 또래관계에서의 친밀감($r=.24, p<.01$), 인정($r=.24, p<.01$), 정서적 안정($r=.22, p<.05$), 도움($r=.22, p<.05$)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보통아의 감정이입능력은 정서적 안정($r=.45, p<.001$), 인정($r=.45, p<.001$), 도움($r=.37, p<.001$), 친밀감($r=.33, p<.001$), 신뢰($r=.29, p<.01$), 만족($r=.19, p<.05$)과 유의한 높은 상관을 보였고 정서조절능력은 정서적 안정($r=.40, p<.001$), 인정($r=.38, p<.001$), 도움($r=.32, p<.01$), 신뢰($r=.23, p<.05$), 친밀감($r=.20, p<.05$)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보통아의 경우 정서인식능력이 높을수록 또래로부터 편안함을 느끼고 관계에 만족하며 적절한 도움을 얻고 또래를 믿으며 친밀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표현능력이 높을수록 또래관계에서 친밀감을 많이 느끼고 인정을 받고 편안함을 많이 느끼고 필요할 때 적절히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보통아들의 경우 또래로부터

		예측변인군								준거변인군								
		대인 적응	지도 능력	사회적 참여	정서 인식	정서 표현	감정 이입	정서 조절	정서 활용	정서적 안정	신뢰	도움	친 밀 감	인정	교제의 즐거움	만족	갈등	경쟁
제1 정준 변량 함수	W	-.10	-.45	-.45	-.15	.06	-.53	.01	-.02	-.22	-.13	-.01	-.10	-.60	-.02	.01	.21	-.17
	L	-.29	-.68	-.64	-.41	-.35	-.65	-.58	-.19	-.84	-.62	-.72	-.71	-.95	-.35	-.56	.21	-.24
	L ²	.08	.46	.41	.17	.12	.42	.34	.04	.71	.38	.52	.50	.90	.12	.31	.04	.06
	%ΣL ²	3.92	22.55	20.40	8.33	5.88	20.59	16.69	1.96	20.06	10.03	14.69	14.12	25.42	3.39	8.76	1.13	1.69
제2 정준 변량 함수	W	.64	-.48	-.57	.28	-.29	.28	.50	.09	.59	.22	.47	-.93	.07	-.49	-.15	.09	-.46
	L	.46	-.20	-.39	.26	.03	.35	.39	.44	.31	.07	.16	-.31	.06	-.50	-.08	.07	-.37
	L ²	.21	.04	.15	.07	.00	.12	.15	.19	.10	.00	.03	.10	.00	.25	.01	.00	.14
	%ΣL ²	22.58	4.30	16.13	7.53	.00	12.90	16.13	20.43	15.87	0	4.76	15.87	.00	39.68	1.59	0	22.22

서조절은 16.13%를 설명하였으며, 준거변인군에서는 교제의 즐거움이 39.68%를 설명하였다. 이는 보통아의 경우 대인적응능력, 정서활용, 정서조절이 보통아의 우정관계의 질을 잘 예측할 수 있었으며 특히 우정관계 중 교제의 즐거움을 잘 예측할 수 있었음을 나타낸다. 즉, 대인적응능력이 뛰어나고 정서를 잘 활용하고 조절하는 아동일수록 교제의 즐거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통아의 사회적 능력 및 정서적 능력 변인군과 우정관계의 각 변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또한 보통아의 우정관계 변인군과 사회적 능력 및 정서적 능력 각 변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교차상관을 통해 알아보았다. 제1 정준함수를 살펴보면, 보통아의 사회적 능력 및 정서적 능력의 교차상관에서 가장 예측력이 강한 변인은 지도력(-.46)과 감정이입(-.45), 사회적 참여(-.45), 정서조절(-.40)로 나타났고, 가장 잘 예측되어지는 우정관계 변인은 인정(-.65)과 정서적 안정(-.57)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통아의 사회적 능력 및 정서적 능력 변인 중 지도력, 사회적 참여, 감정이입과 정서조절능력이 보통아의 우정관계의 질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으며, 특히 이 우정관계 중 인정과 정서적 안정을 잘 예측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즉, 보통아의 경우 지도력, 사회적 참여능력, 감정이입과 정서조절능력이 뛰어나수록 또래로부터 인정을 받고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 정준함수를 살펴보면, 보통아의 사회적 능력 및 정서적 능력의 교차상관에서 가장 예측력이 강한 변인은 대인적응(.22)과 정서활용 능력(.21)으로 나타났고, 가장 잘 예측되어지는

우정관계 변인은 교제의 즐거움(.24)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통아의 사회정서적능력 변인 중 대인적응과 정서활용능력이 보통아의 우정관계의 질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으며, 특히 이 우정관계 중 교제의 즐거움을 잘 예측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무시아집단의 사회적 능력과 정서적 능력 및 우정관계의 질 간의 관계

무시아의 사회적 능력 및 정서적 능력과 우정관계의 질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부록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무시아의 사회적 능력은 우정관계와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무시아의 대인적응은 또래관계에서의 정서적 안정($r=.44, p<.01$), 도움($r=.41, p<.01$), 인정($r=.40, p<.01$), 친밀감($r=.37, p<.01$), 신뢰($r=.30, p<.05$), 교제의 즐거움($r=.30, p<.05$)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지도력은 정서적 안정($r=.46, p<.01$), 도움($r=.46, p<.01$), 인정($r=.43, p<.01$), 신뢰($r=.40, p<.01$), 교제의 즐거움($r=.39, p<.01$), 만족($r=.39, p<.01$), 친밀감($r=.37, p<.01$)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사회적 참여는 만족($r=.65, p<.001$), 정서적 안정($r=.64, p<.001$), 교제의 즐거움($r=.62, p<.001$), 신뢰($r=.61, p<.001$), 도움($r=.59, p<.001$), 인정($r=.54, p<.001$), 친밀감($r=.52, p<.001$)과 높은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즉, 무시아의 경우 대인적응을 잘 할수록 또래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적절한 도움을 얻으며 친밀감을 느끼고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인정을 받고 관계에 대한 확신을 갖고 교제에 대한 즐거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시아 중에서 지도력이 높을수록 또래관계로부터

		예측변인군								준거변인군								
		대인 적응	지 도 력	사회적 참여	정서 인식	정서 표현	감정 이입	정서 조절	정서 활용	정서적 안정	신뢰	도움	친 밀 감	인정	교제의 즐거움	만족	갈등	경쟁
정 준 변 량 합 수	W	-.33	-.11	-.53	-.13	.16	-.30	-.01	-.28	-.49	-.23	.17	-.05	-.41	-.34	.16	.18	-.11
	L	-.56	-.59	-.83	-.58	-.44	-.72	-.58	-.34	-.91	-.75	-.80	-.72	-.81	-.78	-.75	.08	-.07
	L ²	.31	.35	.69	.34	.19	.52	.34	.12	.83	.56	.64	.52	.66	.61	.56	.01	.00
	%ΣL ²	10.84	12.24	24.13	11.89	6.64	18.18	11.89	4.20	18.90	12.76	14.58	11.85	15.03	13.90	12.76	.23	.00

이입(.72)이고 준거변인군 중 가장 부하치가 높은 변인은 정서적 안정(.91), 인정(.81), 도움(.80)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변인군에서 사회적 참여는 군내변량의 24.13%를, 감정이입은 18.18%를 설명하였고, 준거변인군에서는 정서적 안정이 18.90%, 인정이 15.03%, 도움이 14.58%를 설명하였다. 이는 무시아의 경우 사회적 참여도와 감정이입이 우정관계의 질을 잘 예측할 수 있었으며 특히 우정관계 중 정서적 안정, 인정, 도움을 잘 예측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즉, 무시아의 경우 사회적 참여도가 높고 감정이입을 잘 할수록 또래로부터 정서적 안정을 느끼고 인정을 받으며 적절하게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시아의 사회적 능력 및 정서적 능력 변인군과 우정관계의 각 변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또한 무시아의 우정관계 변인군과 사회적 능력 및 정서적 능력 각 변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교차상관을 통해 알아 보았다. 제1 정준함수를 살펴보면, 무시아의 사회적 능력 및 정서적 능력의 교차상관에서 가장 예측력이 강한 변인은 사회적 참여(-.73), 감정이입정서조절(-.63)로 나타났고, 가장 잘 예측되어지는 우정관계 변인은 정서적 안정(-.79), 인정(-.71), 도움(-.70)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시아의 사회적 능력 및 정서적 능력 변인 중 사회적 참여와 감정이입이 무시아의 우정관계의 질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으며, 특히 이 우정관계 중 정서적 안정, 인정과 도움을 잘 예측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즉, 무시아의 경우 사회적 참여능력과 감정이입이 떨어날수록 또래로부터 편안함을 느끼고 인정을 받으며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

거부아집단의 사회적 능력과 정서적 능력 및 우정관계의 질 간의 관계

거부아의 사회적 능력 및 정서적 능력과 우정관계의 질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부록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거부아의 사회적 능력은 우정관계와 몇몇 요인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거부아의 대인적응은 또래관계에서의 인정($r=.28, p<.05$)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갈등($r=-.38, p<.01$)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고, 지도력은 친밀감($r=.54, p<.001$), 인정($r=.50, p<.001$), 도움($r=.43, p<.001$), 교제의 즐거움($r=.31, p<.05$)과는 높은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사회적 참여는 우정관계에서의 신뢰($r=.49, p<.001$), 친밀감($r=.48, p<.001$), 교제의 즐거움($r=.28, p<.05$), 인정($r=.25, p<.05$)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즉, 거부아의 경우 대인적응이 높을수록 또래로부터 인정을 받지만 갈등은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도력이 높을수록 또래로부터 친밀감을 느끼고 인정을 받고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받으며 교제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아 중 사회적 참여도가 높은 아동들은 관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친밀감을 느끼며 교제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아의 정서적 능력도 우정관계와 몇몇 요인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거부아의 감정이입은 신뢰($r=.41, p<.01$), 친밀감($r=.33, p<.01$), 정서적 안정($r=.32, p<.05$), 인정($r=.30, p<.05$), 도움($r=.29, p<.05$), 교제의 즐거움($r=.26, p<.05$), 경쟁($r=.26, p<.05$)과 정적인 상관

을 보였고 정서조절은 인정($r=.34, p<.01$), 경쟁($r=.29, p<.05$), 도움($r=.28, p<.05$)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정서활용은 인정($r=.31, p<.05$), 도움($r=.30, p<.05$)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거부아 중 감정이입능력이 높은 아동은 또래관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래에게 친밀감과 편안함을 느끼고 적절할 때 도움을 얻을 수 있고 교제의 즐거움을 느끼고 경쟁심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아 중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아동은 또래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다 느끼고 경쟁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활용능력이 높은 아동은 또래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적절할 때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아의 사회적 능력 및 정서적 능력과 우정관계 간의 관계를 보다 통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거부아의 사회적 능력 및 정서적 능력을 예측변인 군으로 하고 우정관계의 질을 준거변인 군으로 하여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8개의 정준함수 중 2개의 정준함수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제1 정준함수($Wilk's \Lambda=.067, p<.001$)에 대해 정준상관관계를 자세히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표 10에 제시된 제1 정준함수의 정준부하치에 대해 살펴보면 예측변인군에서 가장 부하치가 높은 변인은 지도력(.86)과 사회적 참여(.69)이고 준거변인군에서 가장 부하치가 높은 변인은 친밀감(.80)과 인정(.63)이었다. 예측변인군에서 지도력은 군내변량의 39.62%, 사회적 참여는 19.33%를 설명하였고, 준거변인군에서는 친밀감이 31.37%, 인정이 19.61%를 설명하였다. 이는 거부아의 경우 지도력과 사회적 참여가 우정관계의 질을 잘 예측할 수 있으며 특히 우정관계 중 친밀감과 인정을 잘 예측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즉, 거부아의 경우 지도력과 사회적 참여도가 높은 아동의 경우 또래로부터 친밀감과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거부아의 사회적 능력 및 정서적 능력 변인군과 우정관계의 각 변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또한 거부아의 우정관계 변인군과 사회적 능력 및 정서적 능력 각 변인군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교차상관을 통해 알아보았다. 제1 정준함수를 살펴보면, 거부아의 사회적 능력 및 정서적 능력의 교차상관에서 가장 예측력이 강한 변인은 지도력(-.70)과 사회적 참여(-.56)으로 나타났고, 가장 잘 예측되

표 10. 거부아집단의 사회적 능력 및 정서적 능력 하위변인군과 우정관계의 질 하위변인군 간의 정준상관관계 분석

		예측변인군								준거변인군								
		대인 적응	지 도 력	사회적 참여	정서 인식	정서 표현	감정 이입	정서 조절	정서 활용	정서적 안정	신뢰	도움	친 밀 감	인정	교제의 즐거움	만족	갈등	경쟁
정 준 변 량 함 수	W	-.19	-.72	-.47	.02	-.04	-.13	-.07	.32	.44	-.29	-.12	-.72	-.50	-.30	.69	.25	-.08
	L	-.36	-.86	-.69	-.26	-.08	-.49	-.58	-.32	-.31	-.47	-.53	-.80	-.63	-.48	-.27	.30	-.14
	L ²	.13	.84	.41	.06	.00	.24	.34	.10	.10	.22	.28	.64	.40	.23	.07	.09	.01
	%ΣL ²	6.13	39.62	19.33	2.8	.00	11.32	16.03	4.71	4.90	10.78	13.73	31.37	19.61	11.27	3.43	4.41	.00

2.12

2.04

어지는 우정관계 변인은 친밀감(-.65)과 인정(-.52)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부아의 사회정서적 능력 변인 중 지도력과 사회적 참여가 거부아의 우정관계의 질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으며, 특히 이 우정관계 중 친밀감과 인정을 잘 예측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즉, 지도력과 사회적 참여 능력이 뛰어난 거부아들은 또래로부터 친밀감을 느끼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1과 관련하여, 성별, 학년과 또래지위에 따른 사회적 능력 및 정서적 능력과 우정관계의 질에서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 능력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최근 한국 연구들에서 사회적 능력에 대한 성차가 일관적이지 못한 것과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남아가 여아에 비해 지도력이나 사회적 참여 등과 같은 사회적 능력이 높은 것으로 여겨졌으나,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여아들이 남아에 비해 더 우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 가정 한 자녀 시대에 접어들면서 부모들은 남아와 여아의 차별없이 양육하고, 오히려 여아를 보다 강하게 키우려는 요구가 강하다.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나 행동이 사회적 능력에서의 성차를 매개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적 능력에서의 학년 간 차이를 살펴보면, 지도력, 대인적응과 사회

적 참여에서 학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학년 및 4학년과 6학년 간에 지도력과 사회적 참여에서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6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지도력은 좀 더 높아짐에 비해, 사회적 참여능력은 4학년에는 높다가 6학년이 되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사춘기의 특성과 관련지어 살펴볼 수 있는데 6학년의 경우 사춘기에 접어드는 과도기적인 시기로, 외적인 활동에 치중하기 보다는 자신을 성찰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집중하여 활동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또래지위에 따라 사회적 능력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사회적 능력 중 지도력이 인기아와 무시아 및 거부아를 잘 분리시키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기아들이 다른 또래지위 집단 아동들에 비해 행동적이며 지도력이 높다는 결과와 일치한다(East, 1991). 또한 인기아들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친사회적인 행동을 하고 외향성, 개방성과 호감성 등이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강화정, 2007; Coie, Dodge, & Kupersmidt, 1990; Parker & Asher, 1987)와 관련지어 살펴볼 수 있는데, 인기아들의 경우 사교성이 높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줄 수 있는 개방적인 마음과 친사회적인 행동을 보임에 따라 다른 또래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그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정서적 능력에서는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학년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정서인식, 정서표현과 정서조절에서 학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고 활용하며 표현하는 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발달함에 따라 정서적 능력이 발달한다는 Salovey와 Mayer(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인지적인 능력의 발달과 더불어 자신이나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구별하는 능력이 증가하며 이전의 정서 상황이나 경험을 토대로 현재의 감정을 조절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정서적 능력에서는 또래지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조절 및 감정이입에서 인기아와 비인기아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조항희, 2002; Golman, 1995; Fabes & Eisenberg, 1992)는 이전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기아들이 무시·거부아들에 비해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잘 이해하며 적절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고 보고되고 있고,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정서적 능력에서 또래지위에 따라 미약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추후 연구에서 이에 대해 좀 더 심도있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우정관계의 질에서의 학년 간 차이를 살펴보면, 정서적 안정, 교제의 즐거움과 경쟁에서 학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별분석결과 정서적 안정, 신뢰와 교제의 즐거움이 학년을 잘 분리시키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2학년과 6학년 간에 차이가 뚜렷함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우정관

계의 질 중 정서적 안정은 6학년이 2학년에 비해 더 높은 반면, 신뢰나 교제의 즐거움은 2학년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아동 후기에 들어서면 또래관계에서의 내적인 측면, 즉, 친밀, 신뢰와 헌신적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Selman, 1980) 신뢰와 친밀감을 바탕으로 친구관계가 한층 더 높은 성숙한 관계로 발전한다(Fehr, 1996).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년이 높은 경우 또래로부터의 편안함이나 안정감을 더 많이 느끼지만 신뢰나 교제의 즐거움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학교교육의 한 측면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특목고입시와 관련하여 입시경쟁이 초등학교에 까지 미치기 시작하면서 초등학교 고학년들의 경우, 또래 간의 경쟁이 어느 때보다 심해지고 있어 또래 간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고 교제의 즐거움보다는 같은 목표(영어성적이나 수학성적을 올리는 위한 목표 등)를 공유하는 집단끼리의 만남이라는 속성이 강해지는 듯하다.

우정관계의 질에서 또래지위 간 차이를 살펴보면, 정서적 안정, 신뢰, 도움, 친밀감, 인정, 교제의 즐거움과 만족에서 또래지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집단에 대한 네 집단 판별분석 결과, 우정관계의 질 중 정서적 안정, 도움과 신뢰가 인기아와 무시아 및 거부아를 잘 분리시키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인기아들이 무시아에 비해 또래친구들로부터 정서적인 편안함을 얻고 필요할 때 적절히 도움을 받으며 또래관계에서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인기아들이 가지는 성격적인 특성과도 관

런지어 살펴볼 수 있는데, 인기아들의 경우 친사회적 행동이나 사교성이 높다는 점(Coie, Dodge, & Kupersmidt, 1990; Parker & Asher, 1987)을 고려해 볼 때, 인기아들이 보이는 친사회적인 행동이나 편안함 등이 또래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주고 신뢰감을 형성하는 밑바탕이 되어 이를 통해 친구들과의 갈등을 적게 경험하며(Putallaz, Hellstern, Sheppard, Grimes, & Glodis, 1995) 또래관계의 질도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연구문제2와 관련하여, 인기아, 보통아, 무시아와 거부아의 사회적 능력 및 정서적 능력과 우정관계의 질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기아의 사회정서적 능력과 우정관계의 질 간에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능력 중 대인적응능력이 높은 인기아는 또래로부터 편안함을 느끼는 반면 경쟁심은 덜 느끼고, 지도력이 높은 인기아는 또래로부터 편안함을 느끼고 인정도 받으며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참여도가 높은 인기아는 또래로부터 친밀감을 많이 느끼고 경쟁도 느끼지만 또래관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즐거움을 느끼고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능력 중 정서표현능력이 높은 인기아들은 또래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필요할 때 도움을 얻고 자신의 가치에 대해 인정을 받으며 경쟁심리는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감정이입과 정서조절이 잘되는 인기아들은 또래로부터 자신의 가치에 대해 인정을 받으며 편안함을 느끼고 적절히 도움을 받으며, 또래관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만족하고 즐거움을 느끼고 친밀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기아의 사회적 능력 및 정서적 능력 하위변인군과 우정관계 하위변인군 간의 정준상관분석결과 제1 정준함수와 제2 정준함수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는데, 제1 정준함수 결과 인기아의 경우 지도력과 대인적응능력이 뛰어날수록 또래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필요할 때 적절히 또래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2 정준함수 결과 사회적 참여도가 높고 감정이입을 잘할수록 또래관계에서 친밀감을 느끼고 교제를 통한 즐거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박인전, 1994; Coie, Dodge, & Kupersmidt, 1990; Parker & Asher, 1987; Vandell & Hembree, 1994)에서 인기아들이 갖는 공통적인 속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인기아들의 경우 또래지위에서 우위를 점할 뿐 아니라 또래관계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특성을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인기아들의 우정관계의 질 또한 개인의 사회적 능력 뿐 아니라 정서적인 능력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들 간의 적응력을 높이고 또래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정서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신시켜준다.

보통아들의 경우도 사회적 능력 및 정서적 능력과 우정관계의 질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사회적 능력 중 대인적응력과 지도력이 높을수록 또래로부터 인정과 편안함을 느끼고 필요할 때 적절하게 도움을 받으며 관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참여도가 높을수록

또래로부터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인정을 받고 교제의 즐거움을 느끼며 관계에 만족하고 적절하게 도움을 받고 편안함도 느끼고 경쟁심도 느끼지만 갈등은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아들의 경우 정서인식능력, 정서표현능력과 정서조절능력이 높을수록 또래로부터 편안함을 느끼고 관계에 만족하며 적절한 도움을 얻고 또래를 믿으며 친밀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아의 사회적 능력 및 정서적 능력 하위변인군과 우정관계 하위변인군 간의 정준상관분석결과 2개의 정준함수가 유의하였다. 제1 정준함수에서는 보통아의 사회적 능력 및 정서적 능력 변인 중 지도력, 사회적 참여, 감정이입과 정서조절능력이 보통아의 우정관계의 질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으며, 특히 우정관계 중 인정과 정서적 안정을 잘 예측하였다. 즉, 보통아의 경우 지도력, 사회적 참여능력, 감정이입과 정서조절능력이 뛰어날수록 또래로부터 인정을 받고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 정준함수를 살펴보면, 보통아의 사회적 능력 및 정서적 능력에서 가장 예측력이 강한 변인은 대인적응과 정서활용능력으로 나타났고, 가장 잘 예측되어지는 우정관계 변인은 교제의 즐거움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통아의 사회정서적 능력 변인 중 대인적응과 정서활용능력이 보통아의 우정관계의 질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으며, 특히 이 우정관계 중 교제의 즐거움을 잘 예측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보통아들의 경우 인기아에 비해서는 사회적 선호도가 낮지만 배척을 당하지 않으면서 또래와 무난한 관계를 형성하는 집단이다. 이 집단은 또래지위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하는 집단임을 고려해볼 때, 이 아동들의 또래관계적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아동들의 또래관계적응과 관련하여 감정이입이나 정서조절능력, 정서활용능력이 중요한 변인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은 아동의 정서적 능력과 사회적 능력 간의 밀접한 관련성(Denham, MacKinley, Couchoud, & Holt, 1990; Garner, Jones, & Miner, 1994)을 확신시켜주는 것으로 또래 간의 긍정적인 적응능력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아동의 정서적 능력을 함양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무시아 중에서 대인적응을 잘 하고 지도력이 높은 경우 또래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적절한 도움을 얻으며 친밀감을 느끼고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인정을 받고 관계에 대한 확신을 갖고 교제에 대한 즐거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참여도가 높을수록 또래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필요할 때 적절히 도움을 얻고 또래로부터 친밀감을 느끼며 교제에 대한 즐거움과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시아 중에서도 정서인식능력이 높으면 또래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적절히 도움을 얻으며 인정을 받고 친밀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감정이입능력과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무시아들은 또래로부터 편안함을 느끼고 도움을 얻으며 친밀감을 느끼고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인정을 받으며 또래관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시아의 사회적 능력 및 정서적 능력 하위변인군과 우정관계하위변인군 간의 정준상관분석결과, 1개의 정준함수가 유의하였는데 사회적 능력과 정서적 능력 중 가장 예측력이 강한 변인은 사회적 참여, 감정이입과 정서조절로

나타났고, 가장 잘 예측되어지는 우정관계 변인은 정서적 안정, 인정, 도움으로 나타났다. 즉, 무시아 중에서도 사회적 참여능력과 감정이입이 뛰어나면 또래로부터 편안함을 느끼고 인정을 받으며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래에게 거부되거나 무시되는 아동의 경우 부적응을 경험하게 될 위험은 높지만 이들이 친밀한 또래관계를 갖고 있으면 또래부적응의 위험을 낮추고 또래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게 된다(Blyth, 1983; Newcomb & Bagwell, 1996; Parker & Asher, 1993)는 결과를 지지해준다. 즉 또래지위는 또래관계에서의 적응에서의 부정적인 측면을 예언해준다면 또래관계의 질은 적응에서의 긍정적인 측면을 예측함으로써(Vandell & Hembree, 1994), 무시아나 거부아의 경우 또래지위에서 박탈된 부정적인 부분을 완충시키기 위해 또래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무시아의 경우 이러한 또래관계의 질이 사회적 참여와 같은 사회적 능력이나 감정이입과 정서조절과 같은 정서적 능력과 관련이 깊다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우선 이들의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능력이나 자신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줌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켜줄 필요가 있다.

한편, 거부아의 경우 대인적응이 높으면 또래로부터 인정을 받지만 갈등은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도력이 높으면 또래로부터 친밀감을 느끼고 인정을 받고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받으며 교제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아 중 사회적 참여도가 높은 아동들은 관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

고 있고 친밀감을 느끼며 교제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아 중 감정이입능력이 높은 아동은 또래관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래에게 친밀감과 편안함을 느끼고 적절할 때 도움을 얻을 수 있고 교제의 즐거움을 느끼고 경쟁심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거부아 중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아동은 또래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느끼고 경쟁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활용능력이 높은 아동은 또래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적절할 때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아의 사회적 능력 및 정서적 능력 하위변인군과 우정관계 하위변인군 간의 정준상관분석결과, 1개의 정준함수가 유의하였는데 사회정서적능력 변인 중 지도력과 사회적 참여가 거부아의 우정관계의 질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으며, 특히 이 우정관계 중 친밀감과 인정을 잘 예측할 수 있었다. 즉, 거부아 중에서도 지도력과 사회적 참여능력이 뛰어나면 또래로부터 친밀감을 느끼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시아와 마찬가지로 거부아들도 친밀한 친구를 가지고 있을 경우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덜 경험하게 되는데(Newcomb & Bagwell, 1996; Parker & Asher, 1993) 거부아들의 경우 지도력과 사회적 참여능력이 또래관계에서의 친밀감이나 인정과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또래관계의 질이 높고 안정적일 때 아동의 사회성이나 지도력이 증가된다는 연구결과(Bemdt, Hawkins, & Jaio, 2005)와 관련시켜보면, 거부아들의 경우 또래관계에서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사료된

다. 또한 거부아들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감정이입이 우정관계의 질과 상당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거부아들에게 타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과 타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조망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또래지위 집단 내에서도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및 정서적 능력에 따라 또래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또래집단 내에서의 역동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또래지위가 아동의 또래관계를 예측하기 보다는 아동이 지니는 사회적 능력 및 정서적 능력에 따라 형성되어지는 또래관계의 질이 합쳐져서 또래적응을 보다 더 잘 예측할 수 있다(이은혜 외, 2001; Vandell & Hembree, 1994)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2, 4,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초등학교생들의 성별, 학년, 또래집단에 따른 사회적 능력 및 정서적 능력과 우정관계의 질에서의 차이와 각 또래지위집단의 사회적 능력 및 정서적 능력과 우정관계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학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왔지만 이는 횡단적 연구에 의한 연령집단의 차이이지 발달적인 측면에서의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발달적으로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지에 대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개인변인에만 초점을 두어 연구가 이루어진 만큼 추후연구에서는 아동의 개인변인뿐 아니라 부모나 교사변인을 포함하여 보다 통합적인 측면에서 또래관계의 적응

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이전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또래지위 내에서의 역동성을 발견함으로써 각 또래지위 집단의 또래적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이들을 중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강화정 (2007). 초등학교의 인기아와 배척아 결정요인 판별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인전 (1994). 아동의 또래관계에 있어서 인기아와 배척아의 행동특성. 새마을지역개발연구, 16, 223-240.
- 배재현, 최보가 (2001). 청소년의 또래괴롭힘과 우정의 질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159-171.
- 이은혜 (1999). 아동의 친구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학회지, 20(3), 77-95.
- 이은혜, 고윤주 (1999). 학령기 아동을 위한 친구관계의 질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0(1), 225-242.
- 이은혜, 김정윤, 오원정 (2001). 아동의 또래지위 및 친구관계와 학교적응의 관계. 아동학회지, 22(1), 1-18.
- 정옥분, 정순화 (2007). 예비부모교육. 서울: 학지사.
- 조향희 (2002). 유아의 또래지위와 정서지능간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agwell, C. L., Newcomb, A. F., & Bukowski, W. M. (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nd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1), 140-153.
- Berndt, T. L., Hawkins, J. A., & Jiao, Z. (2005). Influence of friends and friendship on adjustment to junior high school. *Merrill-Palmer Quarterly*, 45(1), 13-41.
- Blyth, D. A. (1983). Surviving and thriving in social world: A commentary on sex new studies of popular, rejected, and neglected children. *Merrill-Palmer Quarterly*, 29, 449-458.
- Bukowski, W. M., & Hoza, B. (1989). Popularity and friendship: Issues in theory, measurement, and outcome. In T. Berndt & G. Ladd (Eds.), *Peer relationship in child development* (pp.15-45). New York: Wiley.
- Burk, W. J., & Larson, B. (2005). Adolescent perceptions of friendship and their association with individual adjus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 Development*, 29, 165-172.
- Cillessen, A. N., Coie, J. D., Terry, R., & Lochman, J. E. (1996). *The role of gender in the behavioral basis of children's sociometrics status evaluations*.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behavioral development.
- Coie, J. D. (1990). Toward a theory of peer rejection.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17-5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ie, J. D., & Dodge, K. A. (1983). Continuities and changes in children's social status: A five-year longitudinal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29(3), 261-282.
- Coie, J. D., Dodge, K. A., & Kupersmidt, J. B. (1990). Peer group behavior and social status.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17-5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nham, S. A., McKinley, M., Couchoud, E. A., & Holt, R. (1990). Emotional and behavioral predictors of preschool peer ratings. *Child Development*, 61, 1145-1152.
- East, P. L. (1991). Peer status groups. In R. M. Lerner, A. C. Peterson, & J. Brooks-Gunn(Eds.), *Encyclopedia of adolescence* (Vol. 2). New York: Garland.
- Epstein, J. L. (1984). *Friend among students in schools: environmental and developmental factors*. NY: Academic press.
- Fabes, R. A., & Eisenberg, N. (1992). Young children's coping with interpersonal anger. *Child Development*, 63, 116-128.
- Fehr, B. (1996). *Friendship process*. Thousand Oaks: Sage.
- Furman, W., & Buhrmester, D. (1992). Age and sex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s of networks of personal relationship. *Child Development*, 63, 103-115.
- Furman, W., & Robbins, P. (1985). What's the point?: Selection of treatment objectives. In B. Schneider, K. H. Rubin, & J. E. Ledingham (Eds.), *Children's peer relations:*

- Issues in assessment and intervention* (pp.41-54). New York: Spring-Veriag.
- Garner, P. W., Jones, D. C., & Miner, J. L. (1994). Social competence among low-income preschooler: Emotion socialization practices and social cognitive correlates. *Child Development*, 65, 622-637.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Y: Bantam Books.
- Hartup, W. W., & Stevens, N. (1997). Friendship and adaptation in life course. *Psychological Bulletin*, 121, 355-370.
- Hymel, S., Rubin, K. H., Rowden, L., & LeMare, L. (1990).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Longitudinal prediction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from middle to lat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1, 2004-2021.
- Newcomb, A. F., & Bagwell, C. L. (1996). The developmental significance of children's friendship relations. In W. M. Hartup (Eds.),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pp.289-321).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upersmidt, J. B., Coie, J. D., & Dodge, K. A. (1990). The role of poor peer relationships in the development of disorder.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274-30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rker, J. C.,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Putallaz, M., Hellstern, L., Sheppard, B. H., Grimes, C. L., & Glodis, K. A. (1995). Conflict, social competence, and gender: Maternal and peer context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6(4), 433-448.
- Salovey, P., & Mayer, A. D. (1997).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P. Salovey & D. Sluyter (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Educational implication*(pp. 3-31). NY: Basic Books.
- Selman, R. L. (1980). *The growth of interpersonal understanding: Developmental and clinical analysis*. New York: Academic Press.
- Tomada, G., Schneider, B. H., de domini, P., Green, P. S., & Fonzi, A. (2005). Friendship as a predictor of adjustment following a transition to formal academic instruction and evalu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 314-322.
- Vandell, D. L., & Hembree, S. E. (1994). Peer social status and friendship: Independent contributors to children's social and academic achievement in middle school. *Child Development*, 68, 1198-1209.
- 1 차 원고접수 : 2008. 04. 01.
수정원고접수 : 2008. 05. 28.
최종게재결정 : 2008. 06. 05.

Children's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 Levels and Friendship Quality According to Peer Status

Ock-Boon Chung Seong Yeul Han Sook Ja Lee Cheon Hee Lee
Soon-Hwa Chung Kyoung-Eun Kim SeJin Oem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children's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 levels related their friendship quality according to peer status. Peer Nomination(Coie & Dodge, 1983), the Social Competence Scale(Doe & Falbo, 1994), Emotional Intelligence(Institute of Daekyo, 1997), and the Friendship Quality Scale (Lee & Koh, 1999) were administered to 298 2nd, 4th, 6th elementary school students around the capital city. The data were analyzed through Cronbach's α tests, standard deviations, 3-way MANOVAs, Multiple Discriminant Analyses, Pearson's Correlations, and Canonical Correlation Analy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Children's social competence, emotional intelligence and friendship quality differed according to the grade of children and peer status. Sixth-grade children had higher leadership levels, emotional expression and emotional control than second and fourth graders. Popular children had higher leadership levels, emotional control, empathy, emotional expression, emotional stability, support and reliability than neglected and rejected children. 2. The children's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 were presumably associated with friendship quality regardless of peer status. Leadership was the most powerful predictor of popular children's friendship quality, Leadership, social participation, and empathy were all important predictors of normal children's friendship quality, and social participation, empathy and emotional control were the influential predictors of neglected children's friendship quality and leadership levels and social participation levels were the most powerful predictors of rejected children's friendships.

Key words : social status, social competence, emotional intelligence, friendship

부록 1. 성별, 학년, 또래지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정서적 능력, 우정관계의 질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

			사회적 능력								정서 능력							
			대인적응성		인기도 /지도력		사회적 참여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활용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남	2	인기아	2.79	.16	2.49	.19	3.28	.19	2.37	.11	2.18	.11	2.15	.13	2.21	.14	1.62	.08
		보통아	2.62	.11	2.58	.14	3.31	.13	2.26	.08	2.17	.08	2.10	.09	2.20	.10	1.62	.05
		무시아	2.59	.18	2.10	.22	3.10	.21	2.38	.12	2.29	.13	2.43	.15	2.19	.16	1.68	.09
		거부아	2.31	.17	2.15	.21	3.20	.20	2.33	.12	2.06	.13	2.09	.15	2.07	.16	1.57	.09
	4	인기아	2.86	.15	2.77	.19	3.34	.18	2.47	.10	2.39	.11	2.33	.13	2.29	.13	1.66	.07
		보통아	2.93	.14	2.34	.17	3.48	.16	2.56	.09	2.25	.09	2.28	.11	2.41	.12	1.60	.06
		무시아	2.98	.29	1.84	.35	2.55	.33	2.59	.20	2.18	.20	1.93	.24	1.90	.25	1.45	.13
		거부아	2.76	.17	2.40	.20	3.37	.19	2.62	.11	2.36	.12	2.07	.14	2.23	.15	1.58	.08
	6	인기아	2.74	.14	2.79	.16	3.04	.16	2.51	.09	2.36	.09	2.28	.11	2.52	.12	1.56	.06
		보통아	2.48	.15	2.90	.19	2.88	.18	2.50	.10	2.50	.11	2.41	.13	2.56	.13	1.59	.07
		무시아	2.60	.20	2.23	.25	2.85	.24	2.25	.14	2.21	.14	1.89	.17	2.14	.18	1.47	.10
		거부아	2.64	.17	2.63	.20	2.88	.19	2.39	.11	2.14	.12	1.94	.14	2.43	.15	1.52	.08
여	2	인기아	2.87	.13	2.55	.16	3.56	.15	2.48	.09	2.23	.09	2.47	.11	2.42	.11	1.61	.06
		보통아	2.90	.14	2.67	.17	3.40	.16	2.34	.10	2.29	.10	2.00	.12	2.25	.12	1.55	.07
		무시아	2.68	.17	2.25	.20	3.31	.20	2.44	.12	2.14	.12	2.01	.14	2.01	.15	1.62	.08
		거부아	2.92	.17	2.29	.20	3.43	.19	2.55	.12	2.03	.12	2.21	.14	2.16	.15	1.69	.08
	4	인기아	3.23	.16	2.67	.19	3.47	.19	2.73	.11	2.55	.11	2.32	.13	2.41	.14	1.69	.08
		보통아	2.87	.14	2.33	.17	3.56	.17	2.66	.10	2.57	.10	2.28	.12	2.35	.13	1.62	.07
		무시아	3.18	.20	2.09	.25	3.30	.24	2.75	.14	2.49	.14	1.95	.17	2.14	.18	1.63	.10
		거부아	2.56	.18	2.09	.22	2.87	.21	2.36	.12	2.19	.13	2.12	.15	1.98	.16	1.45	.09
	6	인기아	3.06	.20	2.92	.25	3.14	.24	2.56	.14	2.38	.14	2.26	.17	2.62	.18	1.49	.10
		보통아	2.69	.13	2.88	.15	3.44	.15	2.67	.09	2.39	.09	2.21	.10	2.44	.11	1.60	.06
		무시아	2.90	.22	2.71	.26	3.55	.25	2.69	.15	2.39	.15	2.46	.18	2.54	.19	1.57	.10
		거부아	2.13	.24	2.19	.28	2.53	.27	2.32	.16	2.37	.16	1.83	.20	2.10	.21	1.37	.11

부록 1. 성별, 학년, 또래지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정서적 능력, 우정관계의 질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 (계속)

		우정관계의 질																	
		정서적 안정		신뢰		도움		친밀감		인정		교제의 즐거움		만족		갈등		경쟁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2	인기아	2.54	.24	3.42	.21	2.65	.21	2.44	.24	2.46	.24	3.65	.20	3.67	.18	1.51	.24	2.08	.29
	보통아	2.44	.16	3.39	.15	2.69	.14	2.31	.17	2.44	.16	3.86	.14	3.67	.12	1.78	.17	2.40	.20
	무시아	2.52	.27	3.25	.23	2.45	.23	2.38	.27	2.40	.26	3.58	.22	3.48	.20	1.90	.27	2.32	.32
	거부아	1.91	.25	3.18	.22	2.42	.22	1.68	.25	2.16	.25	3.73	.21	3.48	.20	2.09	.25	1.98	.31
남 4	인기아	3.25	.22	3.46	.20	3.08	.20	2.45	.23	3.02	.22	3.50	.19	3.59	.17	1.84	.22	2.25	.27
	보통아	2.61	.20	3.35	.17	2.63	.17	2.25	.20	2.60	.19	3.32	.17	3.52	.15	1.69	.20	2.27	.24
	무시아	2.06	.42	3.19	.37	2.19	.37	1.69	.42	2.06	.41	3.19	.35	3.06	.31	1.69	.42	1.81	.51
	거부아	1.97	.24	2.48	.21	2.48	.21	2.08	.24	2.13	.24	2.96	.20	2.70	.18	1.80	.24	2.25	.29
6	인기아	2.97	.20	3.36	.17	3.00	.17	2.35	.20	2.69	.19	3.42	.17	3.60	.15	1.69	.20	2.13	.24
	보통아	2.88	.22	3.13	.20	2.94	.20	2.45	.23	2.54	.22	3.36	.19	3.48	.17	1.68	.22	1.77	.27
	무시아	2.09	.30	2.66	.26	2.16	.26	1.94	.30	1.72	.29	2.56	.25	2.88	.22	1.81	.30	2.43	.36
	거부아	2.23	.24	2.65	.21	2.84	.21	2.38	.24	2.32	.24	3.23	.20	3.17	.18	1.65	.24	2.25	.29
2	인기아	2.70	.19	3.62	.17	2.88	.16	2.49	.19	2.52	.18	3.63	.16	3.75	.14	1.64	.19	2.62	.23
	보통아	2.36	.20	3.02	.18	2.72	.18	2.27	.20	2.44	.20	3.25	.17	3.07	.15	1.81	.20	2.46	.25
	무시아	2.41	.25	3.27	.22	2.39	.22	1.82	.25	2.21	.25	3.30	.21	3.39	.19	1.68	.25	2.63	.31
	거부아	2.46	.24	3.44	.21	2.71	.21	2.08	.24	2.59	.24	3.27	.20	3.53	.18	1.88	.24	2.50	.29
여 4	인기아	3.28	.23	3.53	.21	2.96	.20	2.81	.23	2.85	.23	3.52	.19	3.71	.17	1.36	.23	1.56	.28
	보통아	2.92	.21	3.39	.18	2.98	.18	2.89	.21	2.80	.20	3.55	.18	3.53	.16	1.63	.21	1.98	.25
	무시아	2.75	.30	2.91	.26	2.69	.26	2.16	.30	2.72	.29	2.91	.25	3.03	.22	1.76	.30	1.63	.36
	거부아	2.79	.27	2.83	.23	2.90	.23	2.13	.27	2.48	.26	3.13	.22	3.33	.20	2.00	.27	2.58	.32
6	인기아	2.91	.30	3.35	.26	2.97	.26	2.68	.30	2.56	.29	3.44	.25	3.79	.22	1.60	.30	1.88	.36
	보통아	3.23	.18	3.51	.16	3.15	.16	3.08	.18	2.79	.18	3.58	.15	3.73	.14	1.91	.18	1.99	.22
	무시아	3.18	.32	3.18	.28	3.15	.28	2.82	.32	2.96	.31	3.32	.26	3.36	.24	1.68	.32	1.79	.38
	거부아	2.67	.34	2.93	.30	2.72	.30	2.17	.34	2.29	.33	3.58	.29	3.58	.25	2.25	.34	2.42	.41

부록 2. 각 또래지위집단의 사회적능력 및 정서적 능력과 우정관계의 질의 관계

		정서적 안정	신뢰	도움	친밀감	인정	교제의 즐거움	만족	갈등	경쟁	우정 전체		
인 기 아 집 단	사회적 능력	대인 적응	.23*	.14	.20	-.08	.03	-.03	.07	-.36**	-.18	-.02	
		지도력	.49***	.11	.38***	.18	.48***	.19	.15	-.18	.04	.37***	
		사회적 참여	.20	.29**	.20	.34**	.18	.30**	.26*	.08	.31**	.44***	
	정서적 능력	정서 인식	.17	.16	.03	.13	.07	.13	.10	-.04	-.06	.13	
		정서 표현	.43***	.05	.32**	.13	.25*	.10	.09	-.13	-.26*	.17	
		감정 이입	.38**	.32**	.46***	.25*	.27*	.27*	.37**	-.04	.11	.45***	
		정서 조절	.36**	.30**	.39***	.19	.32**	.21	.28**	-.19	.03	.35**	
		정서 활용	.29**	.13	.24*	.10	.21*	.09	.02	-.19	-.02	.18	
	보 통 아 집 단	사회적 능력	대인 적응	.16	.08	.12	-.01	.20*	-.09	.07	-.18	-.03	.05
			지도력	.34***	.24*	.27**	.36***	.45***	.11	.22*	-.10	.16	.37***
			사회적 참여	.28**	.28**	.30**	.28**	.38***	.32**	.30**	-.20*	.23*	.38***
정서적 능력		정서 인식	.33***	.25**	.29**	.22*	.27**	.17	.31**	-.08	-.14	.27**	
		정서 표현	.22*	.10	.22*	.24**	.24**	.14	.13	-.11	-.16	.17	
		감정 이입	.45***	.29**	.37***	.33***	.45***	.07	.19*	.02	-.01	.38***	
		정서 조절	.40***	.23*	.32**	.20*	.38***	.04	.14	-.03	.08	.31**	
		정서 활용	.09	.14	.11	-.10	.14	.04	.16	-.10	-.07	.05	

부록 2. 각 또래지위집단의 사회적능력 및 정서적 능력과 우정관계의 질의 관계 (계속)

		정서적 안정	신뢰	도움	친밀감	인정	교제의 즐거움	만족	갈등	경쟁	우정 전체		
무 시 아 집 단	사회적 능력	대인 적응	.44**	.30*	.41**	.37**	.40**	.30*	.28	-.21	.02	.39**	
		지도력	.46**	.40**	.46**	.37**	.43**	.39**	.39**	.08	.27	.55***	
		사회적 참여	.64***	.61***	.59***	.52***	.54***	.62***	.65***	-.14	-.00	.67***	
	정서적 능력	정서 인식	.52***	.21	.47**	.37*	.46**	.34*	.20	-.09	-.11	.39**	
		정서 표현	.38**	.25	.34*	.36*	.39**	.25	.16	.16	.01	.38**	
		감정 이입	.56***	.47**	.44**	.59***	.52***	.54***	.44**	.22	.15	.65***	
		정서 조절	.51***	.16	.53***	.47**	.61***	.29*	.24	.19	.21	.54***	
		정서 활용	.31*	.21	.21	.08	.31*	.17	.16	.13	-.02	.26	
	거 부 아 집 단	사회적 능력	대인 적응	.09	-.06	.24	.16	.28*	-.02	.01	-.38**	-.04	.05
			지도력	.19	.17	.43***	.54***	.50***	.31*	.16	-.24	.10	.36**
사회적 참여			.07	.49***	.17	.48***	.25*	.28*	.20	-.09	.02	.31*	
정서적 능력		정서 인식	.11	.21	.04	.24	.02	-.04	-.02	.03	-.15	.07	
		정서 표현	.08	.04	.11	.19	-.09	.09	.02	.13	-.01	.09	
		감정 이입	.32*	.41**	.29*	.33**	.30*	.26*	.19	-.00	.26*	.41**	
		정서 조절	.17	.09	.28*	.23	.34**	.17	-.01	-.24	.29*	.23	
		정서 활용	.14	.16	.30*	.15	.31*	.10	.14	-.19	.02	.19	

*** $p < .001$, ** $p < .01$, * $p < .05$